

책 공포증을 버리고,

‘서양화 자신 있게 보기’,

‘마사이 전사 레마솔라이’처럼,

자신 있게 살기.

요새 아이들이 책을 안 읽는다고 한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틀리기도 하다. 아이들은 책은 안 읽지만 ‘몇몇’ 책은 정말 열심히 읽는다. 쉬는 시간은 물론이요, 걸리면 뺏길 위험성이 높은 수업시간에도 아이들은 읽어댄다. 교과서 밑에 놓고 읽고, 책상 속에 숨겨 놓고 읽는다. 그렇게 열심히 책을 읽는 아이들은 《태백산맥》, 《토지》, 《죄와 벌》일 턱이 없다. 《아린이야기》, 《황제의 검》, 《신부》 등 모두 판타지 소설 일색이다. 그렇게 행동이 느린 중찬이가 걸렸다. 뺏어야 하나, 혼내야 하나, 난감해진다. 나쁜 짓도 아니고, 그나마 책을 읽는다는데 정상 참작해 줘야 하는 건 아닐까? 내 고민은 길어지는데 주변 아이들은 한마디씩 던진다. “으이구, 판타지나 읽고, 잘한다.” “선생님, 혼내주세요.” 장난 섞인 말을 통해 아이들은 ‘판타지 소설 = 나쁜 것’이라고 전하고 있었다. 만약 중찬이가 카프카의 《변신》을 읽다가 걸렸다면 오히려 아이들에게 찬사를 들었을지도 모른다. 들킨 중찬이는 한참을 부끄러워했다.

그런데 이진 아이들이 잘못 알았다. 오히려 판타지는 권장사항이다. 교과서를 펼쳐보면 《구운몽》, 《홍길동전》, 《토끼전》, 판타지를 예로 들 것이 수두룩하다. 그모두 도술을 부리고 동물이 말하고 신선이 등장하는 등, 환상적 요소가 아주 다분하다. 국어책뿐만이 아니다. 수학, 과학, 미술, 윤리

책을 봐도 판타지, 즉 상상想像 없이는 이해가 불가능하다. 이제 너무 교사다운 결론을 내릴 것이기에 조금 무안하지만, 그래도 소견을 굽히고 싶진 않다. “판타지가 문제는 아니다. 문제는 한쪽으로 치우쳐 ‘인터넷’ 판타지 소설만을 즐긴다는 것이다.” 읽기 편하고 이해하기 쉬운 ‘인터넷’ 소설에 익숙해지면, 조금만 글이 묵직해도 거부반응이 생긴다. 그러한 소설일수록 삶과 동떨어질 수 있다. 삶이 없는 책은 독서가 되지 못한다. 그래서 조금 욕심을 냈다. 조금 어려워도 《서양화 자신 있게 보기 1,2》와 조금 동떨어져도 《마사이 전사 레마솔라이》를 읽고 나면 우리네 삶 냄새가 느껴진다.

책 공포증을 이기고 《서양화 자신 있게 보기 1,2》

아이들은 ‘책 공포증’이 있다. 두툼하고 권수가 많고, 글자가 작으면 우선 자신과 거리가 있는 책이라 생각한다. 그렇게 보면, 《서양화 자신 있게 보기》는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만하다. 2권인 데다가, 두툼하고 반질거리는 종이라 책 무게도 꽤 나간다. 글자도 큰 편이 아니다. 그래서인지 1학년 한 아이는 어정쩡한 웃음만 짓고는 읽으라고 해도 선뜻 응하질 못했다. 그런데 정말 어려웠다면 권하지도 않았다. 어려운 단어도 없고, 앞에서부터 꼼꼼하게 읽어야 할 교과서도 아니다. 슬렁슬렁 보다가 맘에 드는 부분부터 읽고 또 건너뛰고 그렇게 두고

두고 읽어도 제 맛이 충분히 나는 책이다. 나는 몇 번 수업시간에 가지고 들어가 맛보기로 보여주기로 맘먹었다.



미술시간에 배웠던지 칸딘스키와 몬드리안 이야기를 꺼내자 “추상화요, 뜨거워요, 차가워요” 대답도 나오고 “나도 그럴 수 있어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붉은 색과 노란색이 난잡하게 그려진 칸딘스키 그림을 보면, 절로 그런 소리가 나올 만하다. 아주 적절하게 느끼고 있었다. “나는 태생 하던 것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작업실 문을 열었는데, 그때 형언하기 어려운 정도로 아름다운 그림 한 폭이 눈에 띄었다… 가까이 다가가서야 나는 비로소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 그것은 어제 옆에 비스듬히 세워둔 내 그림이었다.” (2권, 434쪽) 칸딘스키가 자신의 그림에 찬탄을 보내는 장면을 읽어주자 아이들은 아주 시끄러워졌다. “저 화가, 심하다”부터 “너 그려봐라”까지, 한마디로 칸딘스키 우습다, 식이었다. “우습지? 그런데 이렇게 우스운 그림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다른 모든 화가는 구체적인 사물만을 그렸다. 아무도 시도하지 못했다. 사과, 나무보다 인간의 느낌, 좋다, 싫다, 우습다 등의 감정을 그린 것은 바로 이 칸딘스키부터다. 자, 느낌만 가득한 이 그림을 보고 사람들은 어떤



《서양화 자신 있게 보기 1,2》이주현 지음 | 학교재 | 각권 250쪽 내외 | 각권 값 17,000원

《마사이 전사 레마솔라이》조지프 레마솔라이 레쿠톤 지음 | 이해경 옮김 | 황소자리 | 168쪽 | 값 9,000원



반응을 보였을까? 쉽게 말해 보자. 아버이 날 어머니께 보석을 주는 것과, 사랑한다는 뜨거운 눈빛을 보내는 것 중 어떤 것에 더 크게 감동을 느끼시며 반응하실까?” “당연히 보석이죠.” 아이들의 대답은 장난이 가득하다. 본격적으로 퀴즈를 풀듯 그림을 감상했다. 브룬치노 <미와 사랑의 알레고리>에서 왜 이 여인은 뒤통수가 없을까? 망각의 여인이거든. 고상하기만 한 마네의 <풀밭 위의 점심식사>가 왜 격렬한 비판을 받았을까? 이 전라산책의 여인이 부인이 아니기 때문이야. 반 에이크의 <아르놀피니 부부>에 나오는 사람 수는? 두 명이에요! 아니. 모두 세 명. 왜냐면 거울 속에 누군가가 보이거든. 아이들의 아우성과 놀람, 호기심. 몇 명은 빌려달라고 부탁까지 한다. 그래, 그림은 이렇게 자신의 생각과 비교하면서 만만하게 볼 책이다. 그림이라면 어렵고, 영어라면 진저리가 나고, 수학이라면 두려운 아이들. 어느 것 하나 자신감보다 자신의 능력부터 점검하는 아이들. 자신 있게 보자. 겁낼 것 하나 없다.



《마사이 전사 레마솔라이》가 전해주는 자신만만한 삶

《마사이 전사 레마솔라이》를 고른 건, 준우 때문이다. 1학년 준우는 덩치는 큰데, 아직도 중학생처럼 상황파악이 더딘 아이이다. 요번에도 화장실에 갔다가 수업시

간에 5분여 늦게 들어왔다. 뭘 시켜도 시큰둥하고, 그 어떤 것에도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준우. 자세를 바로잡아주긴 해야겠는데 정말 능력이 없어서 못하나, 의문이 들었다. 난제難題일 거라 생각하면서도 시집을 건네며 감상문을 써오라 했다. “시를 읽고요?” 소설도 아니고, 시라니. 믿기지 않는다는 준우를 떠밀며 내일까지라고 못을 박았다.

‘레마솔라이’는 ‘자존심이 강한 녀석’이라는 의미란다. 그 이름처럼 이 책은 세상에서 가장 겁 없는 부족 마사이 소년의 실제 삶이 담겨 있다. 맨발로 사자사냥을 떠나고, ‘여자가 주는 것을 받아먹지 않는다’는 부족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고향에서 미국 도착할 때까지 꼬박 나흘을 굶어 버린 생생한 원주민족의 삶. 사람의 수를 헤아리는 것을 탐욕적인 행동으로 여기는 부족의 습성을 좇아 주인공 어머니는 정부에서 인구조사를 나온 사람 앞에서 아이들의 이름을 한없이 불러준다. 조사 나온 사람들이 알아서 세어 갈 때까지. 놀라움을 넘어서서 부끄러움까지 느껴진다. 이쯤 되면 미개와 문명의 구분은 무의미하다.

책 표지에 적힌 부제처럼 마사이 전사 레마솔라이는 아프리카 사바나에서 하버드 석사가 된다. 당시 국가정책의 하나였던 ‘한 가족 한 아이 학교 보내기’ 정책에 의해서다. 그는 미국 선교사에 의해 교육

받아 현재 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아메리카 드림류로 보기엔, 억울한 면이 있다. “처음부터 나는 내가 속한 문화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싶었고 학교는 두 번째였다.” 저자는 여전히 방학이면 부족으로 돌아온다. 전통의복을 입고, 맨땅에서 잠을 자고, 사냥을 떠난다. 자신감을 버리지 않는 것만큼 강한 매력도 없다. 그래서 책 뒤에 적힌 레마솔라이의 친구가 쓴 글은 감동으로 전해진다. “조지프를 만나기만 하면 누구나 걸음걸이가 경쾌하게 바뀌죠. 조지프를 만난 다음에는 거의 날아갈 듯 걸으니까요. “도대체 그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라고 물으면 “하늘을 보라고 얼마나 날씨가 좋으냐고 하더군요”라고 대답해요. 조지프는 주변의 모든 사물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합니다.” (154쪽)

준우가 감상문을 써 왔다. 결과부터 말하면, 감상문은 ‘유레카’였다. 놀랍게도 가르친 것 이상으로 시를 이해하고 있었다. 객관적 상관물이니, 감정이입이니 어려운 단어가 없어도 본질을 그대로 느끼고 있었다. 마치 《마사이 전사 레마솔라이》의 주인공처럼. 겁을 버리면, 우주가 내 것이다. 아이들은 그걸 알아야 한다. **한**

글 | 조주희 서울 대광고등학교 교사

